

경전철반대 BRT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장애우 100인 선언

일 시 / 2004년 5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북문주차장



- 개 회
- 참석자 인사
- 인사말
- 경전철반대 BRT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장애인 100인 선언문 낭독
- 질의 응답
- 폐 회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 소속단체 / (사)한국산재노동자협회대전지역본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대전자활후견기관협회, 대전주부교실대전시지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농생협연합, 대전충남민주노동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민들레의료생협,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뽕엿의집, 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민의모임대전지부, 충청버스사랑동우회, 한빛렛츠, 한빛생협, 전교조대전지부, 민변대전지부 (이상 22개 단체)

<경전철 건설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장애인 100인 선언문>

교통약자 배려하는 지상 교통 시스템 BRT 전면도입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대전시가 정치적 압력과 시민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소모적인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대전시가 시민을 감동시키는 민본행정을 주창한 지 2년이 지났다. 그 세월동안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살아온 우리는 그러나 대전시 행정의 어디에서도 우리 소외계층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도시철도 1호선에 이은 2호선 건설 결정 역시 시민을 감동시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은 차량만 적게 달고 다니는 것일 뿐 지하터널과 고가도로를 주로 채택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매우 불리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경전철이 건설된다면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타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신체조건이나 기력이 약한 사람들까지도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대전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한 지역에서 맛보기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 모든 곳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바란다.

BRT 시스템은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버스에 탈 수 있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었다. 차량이동시에도 우리 버스보다 안정성이 있어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런 버스가 대전에 도입되기를 바란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버스가 우리에게 도시에서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우리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2호선 경전철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전의 장애인들은 일치 단결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다.

2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도 더 많은 건설비와 운영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대전시와 시의회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경전철 추

가건설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가,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전시장은 정치적 압력과 시민사회의 요구사이에서 타협하려 할 것이 아니라 140만 대전시민의 경제와 환경, 복지를 고루 증진하는 BRT 시스템의 전면도입 결정을 하루속히 해야 할 것이다.

구멍 뚫린 독에 국민의 혈세를 끝없이 집어넣어 재정을 탕진하는 대신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복지서비스를 증진하는 데 소중한 재원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대전의 정치권은 국가재정 탕진하고 시민부담 가중시키는 경전철 건설을 즉각 포기하고, BRT 시스템을 대전시 전역에 조속히 도입하라.

2004. 5. 20

경전철 건설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지지하는 장애인 선언 참가자 일동

최완식 최철수 최해수 최행일 최형규 현명수 현제봉 홍성기 홍재구 홍종석 황성덕 황영식 강경식 강병문 강신미 경상수 권대용 권용춘 김경은 김광일 김교석 김길오 김덕선 김도장 김도현 김동환 김병주 김상록 김선규 김선택 김승원 김영수 김영태 김옥순 김윤기 김은실 김진권 김종화 김종혜 김종수 김홍선 남주명 노원성 노유진 류정현 류제봉 문정수 박갑주 박노춘 박대용 박명근 박성일 박수길 박승태 박운규 박인식 박종구 박지수 박찬일 박청배 박춘환 배경식 변희중 성길원 손종일 송두현 송수곤 송영구 송인성 송한홍 신 용 신호선 심원보 안승국 안재철 안판길 양임규 양주환 여종태 오세현 오재신 우만주 원창희 유병원 유승천 유재홍 유철수 유철재 육상록 윤창희 이계범 이기호 이동희 이민자 이상덕 이선욱 이성휘 이순중 이승석 이심관 이용복 이우영 이재환 이점복 이정선 이주형 이주호 이평재 이형걸 이희관 임승묵 임용수 임재각 임진철 임천순 임현태 장상선 장성훈 장순성 전두현 전만출 전문철 전창근 정목영 정종관 정종수 정진봉 정진섭 정학정환공 정희철 조두익 조성욱 조수환 조웅영 주도련 차영기 재수철 천병수 최대하 최복락 최복희 최선돈 최영자(이상 144명)

별첨 / 이후 각계 릴레이 지지선언 일정

경전철 건설을 반대하고 BRT 시스템의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각계의 지지선언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주부(아줌마) 선언

*보도자료로 대체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장애우 선언

*일시 : 2004. 5. 20(목) 오전 11시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대학생 선언

*보도자료로 대체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운수종사자 선언

*일시 : 2004. 5. 25(예정)

*장소 : 대전시청 기자실(예정)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청소년 선언

*보도자료로 대체

■경전철 반대 BRT 시스템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노동자 선언

*보도자료로 대체